

뉴스 자막의 발음 오표기 연구

이 동 석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Study on the Phonological Fault in the News Subtitle

Dongseok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eongju University
E-mail : dsds7311@empas.com

Abstract

Generally the news subtitle is considered as be free of fault. But actually it has committed a fault in many respects. Among these I made a special study of phonological faults; alternation of graphemes, insertion of graphemes, deletion of graphemes and the orthography of loanwords. It is very surprising that the news subtitle has many faults against Korean orthography. We must try to get rid of the faults in the news subtitle.

I. 서론

뉴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우리말을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발음과 어휘, 자막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발표자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방영된 kbs1의 '뉴스 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시 뉴스' 동영상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총 450회 분의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약 2000여 개의 자막 오류 화면을 수집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발음과 관련된 자막 오류만을 다루고자 한다.

II. 자소 교체 오류

음운을 잘못 교체하여 표기한 경우는 주로 모음의 경우에 발견되었다¹⁾. 이를 통하여 국어 화자들이 자음보다는 모음을 표기할 때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 (1) ㄱ. 그쪽과 관계가 있던 없던간에 해야죠. (sbs 8시 뉴스), 인원을 더 늘리던지 해야죠. (sbs 8시 뉴스), 시공사가 공사를 잘못 했던지 누가 어떻게 잘못 했던지 (sbs 8시 뉴스), 가든가 갔다가 아예 못 나오던가 양당 간인데 (sbs 8시 뉴스), 어떻게 쓰였던지 간에 (kbs 1 뉴스 9)
- ㄴ. 할머니 집에는 안 들리고 갔어요. (kbs 1 뉴스 9), 최규선 씨가 이 사무실에 몇 번이나 들리셨습니까? (kbs 1 뉴스 9)
- ㄷ. 기자들이 맨날 무조건 우리 현관에 쳐들어오고 (kbs 1 뉴스 9),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정말 바랬는데 (mbc 뉴스데스크)

(1ㄱ)은 '든, 든지'를 '던, 던지'로 잘못 표기한 것이고

1) 본고에서는 '음운'과 '자소'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음운'은 소리의 단위이고 '자소'는 문자의 단위이다. '음운'을 잘못 교체하여 표기한다는 것은 '소리'를 듣고 이를 잘못 표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기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는 문자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자소'라고 언급하는 게 적절하다. 이에 따라 장 제목에서는 '음운' 대신 '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상태(2005)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ㄴ)은 ‘들르다’를 ‘들리다’로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1ㄷ)은 ‘만날, 바라다’를 ‘맨날, 바래다’로 잘못 발음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 (2) 가. 모르는 것 같은대요 (kbs 1 뉴스 9), 1그램이 면 있잖아 페트병 4병이 나온데 (mbc 뉴스 데스크), 추측하건데 (mbc 뉴스데스크)
- 나. 1학년이요 (mbc 뉴스데스크), 그건 거짓말이요 (mbc 뉴스데스크),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의무관이요 (mbc 뉴스데스크)
- 다. 다음 교황도 요한 바오로 2세와 같은 분이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 르. 검사를 두 번 받는 건가요? 아니오 (kbs 1 뉴스 9), 벌써 떠나진 않았죠? 아니오 (mbc 뉴스데스크)

(2ㄱ)은 /e/와 /ɛ/가 합류하면서 ‘κει’와 ‘개’ 표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경우이고 (2ㄴ~ㄷ)은 모음 /i/ 뒤에서 발생하는 동화 현상을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2ㄴ)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음이 [이요]로 실현되지만, 종결형은 ‘오’로 적고 연결형은 ‘요’로 적는 게 원칙이므로 종결형인 위의 예들은 모두 ‘이오’로 적어야 한다.

(2ㄷ) 역시 발음을 무시하고 형태를 밝혀 ‘분이었으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2ㄹ)은 감탄사를 용언의 활용형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 부정의 의미로 대답하는 감탄사는 ‘아니요’로 표기해야 하고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로서 어간 ‘아니-’가 종결어미 ‘-오’와 결합한 활용형은 ‘아니오’로 표기해야 한다.

- (3) 여기는 회사예요 (mbc 뉴스데스크), 검정색이 한 대 들어와 있는데 골드예요 (mbc 뉴스데스크), 뭐 파는 데예요 (mbc 뉴스데스크)

(3)과 관련해서는 모음 /i/ 뒤에서 발생하는 동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예요, 골드예요, 데예요’처럼 적기 쉬운데, 이 경우는 서술격 조사 어간 ‘-이-’와 어미 ‘-예요’가 축약된 경우이므로 ‘회사예요, 골드예요, 데예요’로 적어야 한다.

- (4) (진○○)를 쳐박고 넘어져도 좋다 (sbs 8시 뉴스)

(4)는 경구개음 ‘ㅈ, ㅉ’와 j계 상향이중모음 ‘ㅊ, ㅅ, ㅆ, ㅈ’가 결합할 때 발음상 모음의 /j/가 탈락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4)의 ‘쳐박고’는 ‘쳐박고’로 적는 게 옳다.

- (5) 경제 어려운데 대통령이 웬 정치 얘기냐? (mbc 뉴스데스크)

위의 예는 ‘웬’을 ‘웬’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 (6) 저희에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을 (sbs 8시 뉴스), 시청에 간부급 부인들도 (kbs 1 뉴스 9), 휴대전화에 벨소리도 대장금 주제곡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mbc 뉴스데스크)

(6)은 관형격조사 ‘-의’를 ‘에’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저희의’, ‘시청의’, ‘휴대전화의’를 [저희에], [시청에], [휴대전화에]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표기는 ‘에’가 아닌 ‘의’로 적어야 한다.

- (7) 가. 7% ⇨ 20% 도달 년수 (sbs 8시 뉴스), 무사고년수 (kbs 1 뉴스 9)
- 나. 성인 남성 담배 흡연률 추이 (sbs 8시 뉴스)

(7ㄱ)은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해당하는 두음법칙을 어겼다. 실제 발음이 [도달년수], [무사고년수]로 실현되지만, 이들이 합성어가 아닌 이상 ‘도달 연수, 무사고 연수’와 같이 적어야 한다. 혹 이들을 합성어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한글 맞춤법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역시 ‘년수’가 아닌 ‘연수’로 적는 게 옳다.

- (8) 제10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7ㄴ)은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의 ‘다만’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도록 하고 있다.

- (9) 용인 이씨 사맹공 후손으로써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mbc 뉴스데스크)

(9)는 ‘로서’와 ‘로써’의 구별과 관련이 있다. ‘로서’는 자격의 기능을, ‘로써’는 도구나 수단인 기능을 가지므로 문장 내의 기능이 어떠한지 제대로 판단해야 이 두 조사를 구별해 적을 수 있다.

III. 자소 첨가 오류

다음으로 음운을 잘못 첨가하여 기록한 경우를 살펴 보겠다.

(10) 심판인 제가 조울을 할려니까 (kbs 1 뉴스 9)

(10)은 ‘하려니까’에 ‘ㄹ’이 첨가된 표기로서 실제 인터뷰 대상자가 실수한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경우이다.

(11) 집에 갈려니까, 밥을 먹으려니까, 집에 갈려고, 밥을 먹으려고

현실 발음에서 위와 같이 어미 ‘-려니까/-으려니까’가 광범위하게 ‘-르려니까/-으려니까’로 실현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려고’, ‘먹으려고’와 같이 다른 경우에도 어미의 두음 ‘ㄹ’ 앞에 ‘ㄹ’이 첨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잘못된 발음이다.

(12) 사람이 도로에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해줬어야 (sbs 8시 뉴스)

(12)는 ‘ㅎ탈락’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ㅎ’은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12)는 이에 대한 일종의 부정회귀(不正回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염두’(念頭)라는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염두에 두다’의 ‘두다’를 ‘불을 켜 두다’의 경우처럼 보조 용언인 것으로 인식하여 ‘염두에’를 용언의 활용형 ‘염두해’로 잘못 분석하게 된 것이다.

(13) ㄱ. 3백만명 귀가길 (sbs 8시 뉴스), 부러진 나무 가지와 파편들을 둘러 보러 나왔습니다 (sbs 8시 뉴스), 신생아실 조도나 광도는 얼마 배속 환경과 유사하게 하는데 (kbs 1 뉴스 9)

ㄴ. 주택 매입에 희삿돈 쓴 혐의 있는 사업체 조사 (sbs 8시 뉴스), 앞뒀면 분리해 (sbs 8시 뉴스), 윗부대에서 소원수리 나오기 전에 (sbs 8시 뉴스), 합격 공지 하룻만에 69명 합격 번복 (sbs 8시 뉴스), 뒀 차량 추월때 운전자 반응 (sbs 8시 뉴스), 청와대 윗선에 보고 않은 것 (mbc 뉴스데스크), 당시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고 (kbs 1 뉴스 9)

ㄷ. 한강 둔치 거북선 나룻터 (kbs 1 뉴스 9)

위의 예들은 사이시옷 표기를 잘못된 경우이다. (13ㄱ)은 ‘귀가길, 나뭇가지, 배속’과 같이 합성어로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이고, (13ㄴ)은 반대로 복합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는 경우이다. (13ㄷ)은 합성어의 둘째 구성 요소가 합성에 의해 경음(된소리)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여기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는 경우이다²⁾.

엄밀히 말해 (13ㄱ)은 자소가 삭제된 경우이지만, 사이시옷 표기 오류라는 점에서 (13ㄴ, ㄷ)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본 장에서 같이 처리하였다.

IV. 자소 삭제 오류

다음으로 음운을 잘못 삭제하여 기록한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14) ㄱ. 카페 들어가면 많이 피고 (mbc 뉴스데스크),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피는 애가 있어요 (mbc 뉴스데스크), 그럴 때 잠깐 피는 건데 (kbs 1 뉴스 9)

ㄴ. 원망스런 원정 다득점 (sbs 8시 뉴스), 블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mbc 뉴스데스크), 당혹스런 일본 (mbc 뉴스데스크), 만족스런 시즌을 보내면서 (mbc 뉴스데스크), 여러 의심스런 지점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14ㄱ)은 ‘피우다’의 어간인 ‘피우-’를 ‘피’로, (14ㄴ)은 ‘-스럽다’의 활용형인 ‘-스리운’을 ‘스런’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실제 발음에서 ‘우’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표준 발음이 아니다.

(15) ㄱ. 2개를 주고 11개를 만드라고 했을 때 (sbs 8시 뉴스)

ㄴ. 얼만큼? (kbs 1 뉴스 9)

(15ㄱ)은 ‘만들라고’에서 ‘ㄹ’이, (15ㄴ)은 ‘얼마만큼’에서 ‘마’가 탈락한 경우이다. (15ㄴ)의 경우 ‘얼만큼’은 준말로 인정하지만 ‘얼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

(16) ㄱ. 민간 부분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야 (sbs 8

2)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동석(2006)은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둘째 구성 요소의 첫소리가 원래 경음인 경우도 포함하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조건을 ‘합성어의 둘째 구성 요소가 합성에 의해 경음(된소리)으로 시작되는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 뉴스), 타협이 되서 업무 복귀를 하면 (mbc 뉴스데스크), 측정이 잘못 되가지고 (mbc 뉴스데스크), 아직 특별하게 협의회가 구성되서 뭐 (kbs 1 뉴스 9), 국제법따라 해결되야 (kbs 1 뉴스 9), (값이) 5억 5천만 되도 (kbs 1 뉴스 9)

ㄴ. 안돼나 (mbc 뉴스데스크)

(16)은 용언 어간 ‘되-’와 관련 있는 오표기이다. (16ㄱ)은 모두 어간 ‘되-’와 ‘-어’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줄인 말인 ‘돼’로 적어야 한다. (16ㄴ)은 반대로 ‘되’로 써야 할 것을 ‘돼’로 잘못 쓴 경우이다.

V. 외래어 관련 오류

다음으로 외래어 관련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17) 바하홀쯔 (kbs 1 뉴스 9), 귀팡치이 (mbc 뉴스데스크), 1200도씨의 (mbc 뉴스데스크), 짜장면 (mbc 뉴스데스크), 마이니찌 신문 기자 (mbc 뉴스데스크)

(17)은 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최근 고시된 타이어, 베트남어를 적을 때에는 파열음의 경음을 된소리로 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을 수 없다.

(18) ㄱ. 곤조인 사찰 (sbs 8시 뉴스), 죠지 달리 (mbc 뉴스데스크), 죠슈파의 (kbs 1 뉴스 9), 셔캅차카 (kbs 1 뉴스 9)

ㄴ. 수퍼박테리아 (mbc 뉴스데스크)

(18ㄱ)은 경구개음 ‘ㅈ, ㅊ’을 초성으로 하고 j계 이중모음인 ‘ㅈ, ㅊ, ㅊ, ㅈ’를 중성으로 하는 음절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18ㄴ)은 ‘슈퍼’를 ‘수퍼’로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super’의 원발음은 [sú:pər]로서 ‘수퍼’로 적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슈퍼’로 적는다. 따라서 (18ㄴ)은 ‘슈퍼박테리아’로 적어야 한다.

(19) 굳 (mbc 뉴스데스크)

(19)는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고 명시한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의 규정을 어겼다. 이 규정대로라면 ‘굳’은 ‘꺄’으로 적어야 한다.

(20) 화이팅 (sbs 8시 뉴스, kbs 1 뉴스 9), 웨리호 (mbc 뉴스데스크)

(20)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제2장의 표기 일람표에 따라 ‘f’를 ‘ㅍ’로 적어야 한다. ‘fighting’, ‘ferry’의 ‘f’를 ‘ㅍ’이 아닌 ‘ㅎ’으로 적는 것은 일본 발음의 영향이다.

(21) 아마존강 (sbs 8시 뉴스), 비에브르강 (mbc 뉴스데스크), 카스피해 (kbs 1 뉴스 9), 오호츠크해 (kbs 1 뉴스 9)

(21)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에서는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아마존 강, 비에브르 강, 카스피 해, 오호츠크 해’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뉴스 자막의 발음 오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뉴스 자막에서 이렇게 많은 오표기가 발견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오표기의 유형 및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발음 오표기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이는 곧 뉴스 자막과 관련이 있는 실무자들이 어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 자막 제작과 같이 높은 신뢰도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이 이처럼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뉴스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자막의 오류는 각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상태, “<한글맞춤법>의 자소체계 연구 -정보화 시대 입력단위 관점에서-”, 새국어교육, 71호, 2005. pp. 405-427.
- [2] 이동석, “효과적인 사이시웃 표기 교육”, 새국어교육 72호, 200